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

김규남*

요 약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 Focus on the threat that resulted in unequal power wood box mines provocation -

Kim Gyu Nam*

ABSTRACT

Our vision is to see the North and there is a large visual target that the two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unity that put the main enemy of enemies in mind in need.

North Korea is the main enemy was illegal invasion June 25, 1950 July 27, 1953 has continued after the armistice join the illegal provocations and cease fire violations so far. August 4, 2015, North Korea was operating by the power differential that operate on an all-out war and declared the initial state after the exhibition gave another provocative DMZ wood box mines. US-ROK military was in the process of real-time detection of the North Korean power operation and the results were broadcast live through the media. Looking at thes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threat of asymmetrical power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we would like to present how to respond.

Key words :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North Korean military, asymmetrical power, WMD

접수일(2015년 10월 2일), 게재확정일(2015년 10월 22일)

* 신성대학교 군사학과

1. 서 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선전포고는 상대국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는 외교적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현재도 선전포고의 필요성은 국제법상 나타나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전쟁을 하기위해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숨긴 채 기습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군은 이번 DMZ 목함 지뢰 도발과 일련의 도발과정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며 최후통첩이라는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공격 전력을 운용 하는 등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공동합의문이라는 결과로 일단락되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기습 남침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에도 약 5,00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201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일부이기는 하나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노출한 군사력 운용은 국제사회와 우리국민, 특히 한·미군 당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북한군의 군사전력 운용은 한미 정보감시 자산에 의해 탐지되었고 언론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하듯이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한·미 정보감시자산이 증강 운용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전면전 수행 전력을 운용하며 보라는 듯이 노출 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당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국면은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공동합의문 발표 형식으로 일 단락되었지만 과연 북한군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하여 수많은 도발을 했다. 하지만 이번도발은 일회성에 그친 단발성 도발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연출된 도발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있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군의 군사력은 대부분 공개되어 핵 및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전력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이번 무모한 도발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군사적 무력시위로 많은 전력을 노출 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속성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결국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한대로 고위급접촉을 통한 '대북 확장기에 의한 심리전 중지'라는 실리를 얻었다. 이에 우리는 단순히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극적 타결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의 노림수가 무엇인가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계속된 불법 도발 과정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노출된 전력이 의도된 연출인가 아니면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욕심이 낳은 자충수인가를 되짚어 보며 과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 대칭전력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군의 위협 및 대응

2.1 북한군의 군사력

북한군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북한과 대치하며 유사시 북한군과 일전을 치러야 할 일선 지휘관의 판단은 가장 현실적으로 무게를 둔다.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2008~2011년)은 2011년 2월 9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여야 국방위원 일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4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8위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이 여타 국가들 중 상위 순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대단하지만 비대칭전력과 핵 및 탄도미사일 수준 등이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섰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2011년 1월 11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무장관은 '뉴욕 타임스'를 통해 "북한은 5년 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 유예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군축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북한의 군사력을 거론 할 때 단순히 병력의 수와 재래식 전력의 숫자를 말한다. 2014 국방백서를 통해 (표 1)에서와 같이 남북 군사력 비교를 보면 한국군 63만여 명과 북한군 120만여 명으로 병

력은 수적으로 2배가량 한국군이 열세하며 잠수함정의 경우 한국군은 10여 척에 불과한데 북한군의 70여 척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점을 우리는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은 노후화 되었고 한국군은 첨단 전력이라는 합리화를 하지만 군사력 비교를 아전인수격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이 북한군과의 전력비교에서 재래식 전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북한군이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하였고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에 자행한 포격도발을 보며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을 비대칭적으로 활용하면 한국군에게 치명적인 피해와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학습하였다.

<표 1> 남북 군사력 비교

구 분		한국군	북한군
병력	계	63만여 명	120만여 명
	육군	49.5만여 명	102만여 명
	해군	7.0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2만여 명
육군	전차	2,400여 대(해병)	4,3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	2,500여 문
	야포	5,600여 대(해병)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	60여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150여 척	75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입무기	400여 대	820여 대
	기타	270여 대	530여 대
헬기		690여 대	30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770만여 명

근거 : 2014년 국방백서(2014. 12. 31) 제정리

2.2 북한의 비대칭전력

1970년대까지 북한군의 가장 위협적인 도발수단은 공군전력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북한군은 전통적인 군

비 경쟁보다도 비대칭전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치중하였다.

<표 2> 북한의 비 대칭전력

구 분	주요 내용
핵	핵무기 6~1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약 40kg 확보,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가동
생물학무기	탄저균, 천연두균, 콜레라, 유행성출혈열 등 생물학 작용제 12종의 균체를 보유, 유사시 자체 배양능력 구비 추정
화학무기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최루 및 구토작용제 등 2500~5000t 보유 추정
탄도미사일	스커드(300~500km), 노동(1500km), 무수단(3000km), 대포동 1호(2500km), 대포동2호(6700km) 등 모두 1000여발 보유
특수작전부대	약 20만 명
잠수함	로미오급, 상어급, 연어급 등 70여척
사이버 전력	해커부대 600~700여명 운용
장사정포	13600여문, 이중 700여문 수도권 겨냥*1 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근거 : 2014년 국방백서(2014. 12. 31) 제정리

현재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은 (표 2)에서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군이 고성능 첨단무기를 증강배치하면서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6~1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약 40kg 확보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수출 및 기술이전 단계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려는 수준이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여 1000여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무기는 탄저균과 천연두 균을 포함하는 12종의 균체를 보유하여 유사시 자체 배양능력을 구비하였으며 화학무기는 2500~5000t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수작전부대는 유사시 아군의 후방을 타격하고 교란하기 위해 약 2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은 로미오급, 상어급, 연어급 등 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전력 면

에서는 최근, 1980년대부터 양성한 600~700명의 해커 부대를 활용하여 2014년 11월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여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남한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이버 버전을 통한 비대칭 도발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3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여 한국군은 첨단전력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1월 한국군은 북한군의 핵과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 개발을 핵심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군이 확보할 역 비대칭 전력은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이다. 현재 한국군의 정찰 및 감시수단의 감시 능력은 평양권 이남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미군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은 북한의 WMD에 대응하여 (표 3)에서와 같이 지상·공중·해상 타격수단을 망라하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으로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내는 대북 타격용 초정밀 유도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전자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MP탄을 개발하는 등 대응 차원의 전력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또 다른 비대칭 역공으로 GPS 수신을 교란하는 전파를 발사해 정밀유도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대남 전자전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에 이어 최근에도 수도권과 서해 NLL 일대의 한국군 해군을 겨냥해 전자전 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군이 대잠수함 경계에 치중하자 해안포를 이용한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 의표를 찌르는 등 그들의 도발형태와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연평도에 감시 및 타격 전력을 보강하자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DMZ 목함 지뢰 도발과 이어서 일련의 도발을 자행하였다.

<표 3> 북한의 비 대칭전력 남한의 대응

구 분	주요 내용
WMD	레이저 유도폭탄 / 초정밀 유도무기 도입 고고도 무인정찰기 / 방사능 탐지장비 도입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 구축
탄도미사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지하시설파괴 폭탄 등 도입
특수전부대	서해 5도 후방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강화 자주포와 공격헬기 증강배치
잠수함	신형 음향탐지장비와 해저 음향센서, 차기 구축함 등 도입
사이버 전력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수백 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 창설(2010년 1월)
장사정포	신형 대 포병레이더와 고성능영상감시 장비, 합동정밀직격탄(JDAM) 도입 완료

근거 : dongA.com '천안함이 촉발한 비대칭전력 경쟁'
2011.3.23.일 재정리

결국, 북한군의 비대칭전력 위협에 한국군이 대응 차원에서 장비를 배치하고 첨단전력을 갖추면 북한군은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장소에 도발을 하는 등 남북이 끝없는 '비대칭 전력 경쟁'은 새로운 창과 방패의 싸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4 대북 정보감시태세 운용

한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정찰 및 감시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대북 정보감시태세 위치콘(Watch Condition)을 1981년부터 운영하였다. 위치콘은 총 다섯 단계로 나뉘며 최저단계인 5단계에는 정상준비태세인 일상적인 상황으로 징후경보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4단계는 경계강화단계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잠재적인 적의 위협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전협정 체결이후 한반도 상황이 대부분 4단계에 해당된다. 3단계는 준비태세강화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경우가 있는 경우, 적정 감시를 위해 정보요원 근무를 현저히 강화한다. 위치콘 3단계는 1992년 10월 북한이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준전시 상

태를 선포하였을 때 발령되었다. 2단계는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현저한 위협이 일어날 징후가 보일 때 발령하며 정보 전력과 정보요원을 증강 운용한다. 위치론 2단계는 1982년 북한이 IL-82 폭격기를 진진 배치했을 때 처음 발령됐으며, 1996년 북한이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했을 때, 1999년 제1연평해전 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당시와 이번 준전시상태까지 총 6회 발령되었다. 위치론 1단계는 적의 도발이 명확할 때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위치론을 운용하면서 1단계는 한반도에서는 현재까지 발령된 적이 없다. 현재 미 정보당국은 약 100여개의 군사용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론이 한 단계 격상하게 되면 한·미 양국군의 정찰감시자산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된다. 한반도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자산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KH-12군사위성으로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수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북한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또한 오산기지에 있는 U2정찰기의 감시활동도 2일 1회 비행에서 1일 1회 이상으로 활발해진다. 최근 북한군이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자 한·미 정보당국은 위치론 3에서 위치론 2로 한 단계 더 격상하여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였다.

3. 최근 북한의 도발 및 대응

3.1 북한군 목함 지뢰 도발 및 경과

2015년 8월 4일 DMZ내에서 목함 지뢰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 조사팀은 8월 6~7일간 합동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10일 오전에 발표하였다. 군 당국 발표에 의하면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 목함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군의 이번 DMZ 목함 지뢰 매설은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로 추정되며 목함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 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 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이었다”. 해당 통문은 우리 측 수색대원이 DMZ에 대한 순찰을 할 때 통과하는 지점이며 현장에서 수거한 철제 용수철, 공이 등 5종 43점과 추가적으로 폭발 당시 TOD 영상을 공개하였다. DMZ 목함 지뢰 도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확인되자 8월 10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DMZ 내 목함 지뢰도발에 따른 북한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3.2 대북확성기 방송 및 대응

우리군은 DMZ 목함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군의 책임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북한군은 무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당일 오후 5시 국방부에서는 2004년 북한의 요구에 의해 갑자기 중지된 대북 확성기방송을 11년 만에 재개를 결정하였다. 지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작전으로 부분적으로 재 설치되어있던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활용하여 파주 1사단지역과 중부지역 및 중동부 전선과 서부전선 등 11곳에서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13일 북한에 장성급 1차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거부하였다.

8월 11일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DMZ 목함 지뢰 폭발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였다. 8월 13일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에 장성급 2차 회담 제의를 하였으나 이 제의도 북한은 거부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북한당국은 적반하장 격으로 8월 15일 조선인민군 전선 사령부의 공개 경고장이라며 확성기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북 심리전수단 파괴 및 군사행동 개시를 경고한다며 다음 도발 수순을 밟고 있었다.

3.3 추가 군사적 도발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이후에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었다. 추가 군사적 도발 1일차인 8월 21일에는 최초에는 76.2mm 평사포를 진지에 배치하였다. 도발초기 일부 언론에서는 76.2mm 평사포의 최전방 전개가 대북 심리전 방송장비 타격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북한군은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가동하였다.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비대칭전력을 운용하였는데 전면전에 앞서 한국군 지휘통제 시설 타격과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요원을 트럭을 이용하여 최전방으로 이동시켰다. 같은 시간 인민군은 완전군장 후 갱도생활로 돌입했는데 북한군의 갱도생활은 그들의 중대 급으로 부터 대부대 전술 훈련기간과 한·미 연합연습 간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서 식별된 전방부대 갱도포병을 사격 진지로 이동시키고 최전방에 배치된 직사화기는 총안 구를 개방하였다. 또한 SCUD와 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이동발사대 준비가 식별되었다.

<표 4> 북한군의 비대칭전력 운용

구 분	주 요 내 용
8. 21. 오전	북한군 전진시상태 선포
8. 21.	최전방 76.2mm 평사포 전진배치 특수부대 최 전방배치 인민군 완전군장 후 갱도로 이동 방사포·자주포·야포 사격 진지로 이동 총안구 개방
	SCUD·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후 (TEL 준비)
8. 22	잠수함 50여척 기지이탈 76.2mm견인포 DMZ내 전진배치
8. 23	최전방 포 부대 전력 2배 증가 (30mm/57mm고사포, 122mm자주포)
8. 24	공기 부양정 10척 철산에서 서해 남포해 상으로 이동 특수부대 수송용 AN-2기 이륙 준비 공군 출격 준비
8. 25. 12:55	남북 공동선언문 타결

근거 : 청와대 및 국방부 8.21~8.25일 발표 재정리

이와 동시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려는 정후 역시 포착됐다고 한다. 추가 도발 2일차인 8월 22일에 북한 해군은 서북도서 인근해역의 민간어선의 조업을 중지시킨 채 승조원들을 전투함정에 머물게 하며 출동태세를 갖췄다.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을 긴장시킨 것은 잠수함 전력

이었다. 북한군이 보유한 잠수함의 70%인 50여척이 기지를 이탈하여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전면전 초기 북한 잠수함의 역할은 특수작전부대원을 침투시키고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는 등의 후방지역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76.2mm견인포를 DMZ내에 전진배치 하였다. 추가도발 3일차인 8월 23일에는 북한군 최전방 포 부대 인 고사포와 122mm 자주포의 전력을 증가 시켰다. 추가 도발 마지막 날 8월 24에는 특수작전부대 수송용 공기 부양정 10척을 전방지역 탑승기지로 이동시켰으며 AN-2기의 이륙 준비가 식별 되었다. 이상 4일간에 걸쳐 북한군이 주요 비대칭전력을 전개한 일련의 도발을 보면 최초 공격준비 타격을 위한 전력운용으로 포병·직사화기·고사포·중·장거리 미사일 운용 준비와 이와 동시에 운용되는 특수작전부대의 전방지역 이동과 공기부양정과 AN-2기의 전방 전개가 이루어졌으며 잠수함이 초기작전 투입이 이루어졌었다.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시사점

4.1 북한의 일련의 도발의 시각

이번 북한의 도발을 보는 국제사회 많은 우려를 했으며 북한군의 시차별 전력 전개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미 CNN 방송은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과 이어진 일련의 군사적 도발 당시에 북한군의 시차별 공격준비 전력운용을 토대로 한·미 군 당국은 기존의 작계 5027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되어 공격 초기에 포병과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정후가 포착된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대규모 공기부양정의 발진 기지로의 이동은 한미 연합군을 긴장 시켰다. 특히 현재 북한의 여건을 고려 장비 노후화와 훈련미비에 따른 가동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판단은 잘못 판단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유 자산의 70% 정도의 잠수함정의 기지 이탈은 한미 군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해군 관계자에 의하면 해상전력은 보유자산은 통상 30% 수준으로 운용하고 30%는 대기, 나머지 30%는 정비하는 수준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4.1.1 강·은 양면전술 수행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협상이란 문제의 해결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한 분쟁의 잠정적 유보 내지 혁명투쟁의 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협상을 남과 북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공작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을 기만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은 8월 21일 오전 준전시 상태 선포하기 하루 전인 8월 20일부터 대남담당 비서인 김양건을 통해 현 사태 수습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8월 21일 16:00에는 대남담당 비서 김양건이 1:1로 국가 김관진 안보실장과 접촉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총 정치국장 황병서와 하자고 역 제의 하여 8월 22일 09:35분 북측의 황병서와 김양건, 남측의 김관진, 홍용표를 포함하는 2+2 회담으로 북한 측이 요청하였고 당일 11:25분 우리 측이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8월 22일 18:36분에 평화의집에서 2+2 고위급 접촉이 개시되어 8월 25일 00:55분 남북 공동선언문이 타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협상 목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하였으며 공동합의문 타결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챙기고서야 '준전시 상태 해제'라는 형식적인 문구를 공동합의문에 포함시켰다.

4.1.2 전쟁시나리오를 노출했는가?

북한군은 이번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진 일련의 도발에서도 공격준비타격 수단으로써의 SUCD와 노동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를 운용준비 하였다. 이어서 대규모 특수작전부대 침투 수단인 AN-2기 잠수함정, 공기부양정을 전방에 전개시켰다. 이러한 절차는 기존의 공격 전술인 포병과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하여 남한의 요충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함과 동시에 후방의 혼란을 야기한 후, 주력이 휴전선을 돌파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 예측 가능해졌다고 군 당국은 보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북한군이 무모하게 그들의 속내를 다 보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미 연합군은 적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위치코를 격상시켜 연합감시 자산을 실시간 운용한다는 것을 북한군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미 연합군은 연합 위기징후목록을 관리하며 실시간 북한의 전쟁준비 단계를 확인하는데

실질적인 공격 준비를 위한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북한이 그들의 속내를 다 들어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쩌면 추가 무력도발 의사가 없었던 북한군은 보유한 잠수함을 최대한 기지를 이탈시킨 것은 최대한 전력 규모를 최대한 과시하기 위해 능력이상으로 가동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전면전을 수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전투기와 폭격기의 활동이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던 반면 지대공미사일 운용을 위한 레이더 가동만 했다는 점은 한미 연합 공군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

4.2 북한군 전력운용 및 함의

북한군이 6.25전쟁이후 여덟 번째로 선포된 이번 준전시 상태에서 보여준 전술의 핵심은 3대 침투 전력인 공기부양정, 잠수함, 특수전 요원을 동원하여 준전시 상태 매뉴얼대로 전방에 배치했다. 또한 지상에서는 지대공 및 지대함 미사일 발사준비 단계인 레이더가 가동되었다. 전방진지에서는 평사포에 의한 직접조준 타격준비, 포병 및 미사일을 활용한 공격준비타격 전력을 운용시키며 군사적 긴장감을 극적으로 고조시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군이 이번에 보여준 전면전 초기 전력운용은 자충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군이 이번에 전쟁 시나리오대로 전력을 순차적으로 운용하며 그들의 작전계획을 거의 드러내어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전면전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 전력을 운용했는지 아니면 고위급 접촉에 이르는 과정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었는지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작계 5027에서 한·미 군 당국은 적 전투서열과 진장정보 분석결과, 북한군의 공격전술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은 이러한 북한의 전쟁시나리오를 이미 파악하고 위기단계별 연합위기징후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감시자산을 운용하여 실시간 파악하면서 정례적인 연합연습을 통해 대응훈련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군이 기도하는 전면전은 예상 시나리오(가정)은 최초 가용한 포병과 미사일 직사화기를 포함하여 공격준비타격을 실시할 것이다. 공격준비타격 간에는 다량의 화학탄을 포함하여 최초진지 돌파 여건을 보장 할 것

이다. 동시에 사전 침투 전력을 이용하여 침투한 특작 부대는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고 견부나 예외지역을 선점하고 후방을 교란 할 것이다. 또한 수중침투전력으로 침투한 세력은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여 항만 사용거부 작전을 할 것이다. 소규모 목표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공기 부양정을 이용한 기습 상륙으로 단 기전을 노릴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보고 있다

4.3 한·미 작전계획의 발전 추세

현재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정규전발발 시 적용할 작계는 5027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한국군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작계 5015를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한·미 군 당국은 작계 5015를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이하 WMD) 등의 제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기존 작계 5027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억제 전력을 운용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전투지역 전단(FEBA)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며 반격 여건을 조성하여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신 작계 5015는 북한군의 공격 개시와 동시에 반격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특히 향후 작계 5015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분야는 심리전과 참수작전, 정보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참수작전은 주요 지휘자를 제거한다는 뜻의 미군 작전 개념으로 적국이 핵 및 WMD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을 활용하여 적국의 최종 무기사용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연합 한반도작전간 우리 한·미군이 참수작전을 적용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5. 결 론

북한군의 지난 8월초 아군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자행된 일련의 도발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 치밀한 사전계획 및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군은 군사적 시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정권의 대남 강경모드를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 2015 신년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못할 것도 없다”는 발언은 우리 정부와 많은 북한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추측을 양산시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을 고무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 형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자 5월 초 우리정부는 정부, 민간·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어서 7월에 실시된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가 불발로 끝나는 등 김정은의 고위급 접촉 실패에도 우리 정부의 뚜렷한 화답이 없자 일련의 불법도발 카드를 빼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군은 이번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일련의 도발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일부 전면전 초기 전력을 운영하였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드러난 북한군의 전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은 비대칭전력을 활용하여 단기결전을 시도하는데 우리군은 첨단 정보전력 체계와 정밀타격전력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일부국가만이 중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인식해야 한다. 지피지기란 날카로운 창에 대응하는 견고한 방패만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좋은 방패도 좋지만 그 방패를 사용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우리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첨단장비가 없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현 체계에서도 생각만 바꾸면 역 비대칭전력 확충이 가능하기에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군사전략과 교리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2세대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 후 더 길고 험한 전쟁을 수행

하였고 4세대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군도 목함 지뢰에 당하고 첨단전력이 북한군의 GPS 교란작전에서 무용지물로 확인 되었듯이 적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역비대칭 군사전략과 교리가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전략부대의 확충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및 군사전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크게 특수작전 전력, 정보전 전력, 심리전 전력, 사이버전 전력, 전자전 전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너무 비대한 육군중심의 편성의 그 일부를 전략부대위주로 개편한다면 유사시 북한군 비대칭전력에 대응하며 평소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칭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 작계 5015의 조기 완성이다. 작계 5015는 기존작계를 통합 보완하여 북한의 핵 및 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가장 발전된 부분은 참수작전으로 핵 및 WMD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곧바로 이 무기의 최종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작계 5015가 완성되면 평시부터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북한군 지휘체계 및 핵심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될 것이다.

넷째, 국방조직의 문민화이다. 이는 국방정책의 효율성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에는 누가 국방부장관이 되는가에 따라 일종 예비역계파의 줄 세우기가 심화되고 있다. 현역이 나간자리에 예비역을 채우는 것은 국방조직의 문민화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외에 국방부의 인력 구성 역시 현역 군인 숫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방의 역동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분단 70년을 맞으며 지금까지 남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또 유사시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승패에 상관없이 우리민족은 공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의 통합을 통한 통일을 길을 여는 진정한 리더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 [1]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 [2] 김태웅,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 의 실제와 그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 75권 , 단일호, 2015.
- [3] 김태훈,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2.
- [4] 박창권·권태영.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 대안과 선택방향”,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통권 제39호, 2007.3.
- [5] 오광세 황태섭, “북한의 4세대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 74권, 단일호, 2015.
- [6] 이만중. “한국군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 2.
- [7]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8] 최대석, 정영철, 장인숙. “북한의 대남 협상전술과 주요 협상가”. 統一問題研究 2007년 하반기호 (통권 제48호)
- [9]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12. 31.

【저자소개】



김 규 남 (Gyu-Nam Kim)

1984년 2월 학사
1998년 8월 석사
2012년 2월 박사

email : baguni52@naver.com